



KIA 로페즈

# 로페즈-김광현 '빅매치'

##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 KIA 타이거즈, SK·롯데 상대 홈 6연전 이범호 홀로 분전 ... CK포 부활이 관건

‘특급 용병’ 로페즈가 SK 김광현을 상대로 4승 사냥에 나선다. 원정 6연전을 마치고 돌아온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홈 6연전을 갖는다. 주중에 만나는 상대는 1위 독주중인 SK 와이번스. 주말에는 방망이가 꿈틀대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와 격돌한다.

지난주 원정길에서 삼성·LG를 만난 KIA는 3승3패의 성적을 거뒀다. ‘부상병’ 이용규·나지완의 이탈과 함께 로페즈가 한 차례 선발로테이션을 거르는 등 부상이라는 악초를 만난 KIA에게는 ‘열반의 성공’이다. 그러나 초반 치열한 순위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1승이 간절한 상황.

한숨 쉬어간 로페즈가 26일 김광현과의 빅매치에 나서 기선 제압에 나선다. 올 시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로페즈가 우위에 서있다.

로페즈는 올 시즌 3번의 출격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끊으며 3승을 거뒀다. 방어율은 1.57. 3번

의 등판에서 1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지만 사사구는 4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반면 좌완 특급 김광현은 4차례 등판에서 6.23의 방어율로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번의 등판에서 모두 채 5회도 넘기지 못하고 강판되는 등 부진했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있다. 로페즈는 1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스파이크에 발 뒤꿈치가 찢기는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주 등판을 하지 못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미세한 통증도 남아있다. 뜻하지 않은 휴식이 로페즈의 피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김광현의 ‘타이거즈 킬러’ 본능도 KIA에게는 부담스럽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KIA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광현이다.

KIA에게는 타선의 집중력 강화가 절실하다. 개막이후 불을 뿜던 타선은 이용규·나지완이 빠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25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18	13	5	0	0.722	-	1승
2 두산	18	12	5	1	0.706	0.5	5승
3 KIA	19	10	9	0	0.526	3.5	2승
3 삼성	19	10	9	0	0.526	3.5	1패
3 LG	19	10	9	0	0.526	3.5	2패
6 넥센	19	7	12	0	0.368	6.5	1승
7 롯데	18	5	11	2	0.313	7.0	1패
8 한화	18	5	12	1	0.294	7.5	2패

지면서 짜임새가 헐거워졌다. 경기당 평균 6.5점을 뽑아냈던 타선은 원정 6연전에서 평균 3.3점을 만드는데 그쳤다. 계속된 강행군에 크고 작은 부상을 호소하는 등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중심타선의 불균형으로 KIA의 타력소가 주춤하다.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구성된 클린업 트리오는 원정 6연전에서 합작한 타점은 10점. 이중 이범호가 적시적소에 공을 날리며 나홀로 8타점을 싹쓸이 했다. 최희섭은 20일 시즌 두 번째 홈런 포를 쏘아올리며 3-0 승리의 주역이 됐지만 이날 홈런으로 기록한 타점이 원정 6연전의 유일한 타점.

김상현은 2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0.182의 타율로 부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7) 1984 KS '삼성의 골목'

한국프로야구 3년차를 맞이한 1984년의 챔피언 결정 방식은 전기 우승팀과 후기 우승팀 간의 7전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를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이었다.

전기 우승팀은 경북·대구연고의 삼성 라이온즈였고, 후기 우승팀은 경남·부산연고의 롯데 자이언츠였다. 롯데 자이언츠는 7차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4승3패(4-0, 2-8, 3-2, 0-7, 2-3, 6-1, 6-4)로 대망의 패권을 차지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으로 종지부를 찍은 1984년의 한국 시리즈는 프로야구계에는 새옹지마의 교훈을 심어 주고, 삼성 라이온즈에게는 씻기 어려운 치욕과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 시즌이 되고 말았다.

기필코 우승을 하겠다는 삼성 라이온즈는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결투러인 상대 OB 베이스를 피하기 위해 욕을 먹더라도 '사자 제물인' 롯데 자이언츠를 '파트너'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그 결정 과정에서 '시퍼런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망각한 채로 '비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이라는 착각을 했던 모양이었다.

## 저주기 게임하며 롯데 선택 '무쇠팔' 최동원에 4패 눈물

전기 1위를 확보해놓은 삼성 라이온즈는 9월22일과 23일 부산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후기 우승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며 저주기 경기를 화려하게 연출했다. 투수는 4사구 남발, 타자는 헛스윌 일관, 주자는 걸어서 스스로 태그아웃 당하기 그리고 야수는 타구 알까기에 멀리던지기 등 스포츠정신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작태를 보여주며 그토록 원하던 롯데 자이언츠를 간택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히 맞아 떨어진 예가 또 있을까? 롯데는 '무쇠팔' 최동원이 7차전 중 5경기에 등판 4승1패(1완봉승, 2완투승, 1구원승, 1완투패)의 믿기 어려운 활약을 과시하며 삼성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다. 롯데 류두열은 한국 시리즈에서 17타수 1안타의 기록으로 최동원을 제치고 MVP가 되었다. 그가 날린 1안타가 1984시즌 한국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를 끝내버린 핵폭탄과 같은 3점 홈런 한 방이었던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저주기 승부조작 사건이 발각가 되어 원년부터 시행해왔던 전후기 우승경기방식은 1985시즌부터는 종합승률제로 경기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1984년의 불멸의 스타는 100경기 중 무려 51게임출장에 27승13패6세이브, 방어율 2.40을 기록한 '거인 중 거인' 최동원(롯데), 타율(0.340)·홈런(23)·타점(80)·장타율(0.633) 등 타격 4관왕에 오른 '대타자' 이만수(삼성), 구원왕에 올라 신인왕을 거머쥔 윤석환(OB), 33게임 무실책의 명투수 정구선(삼미) 그리고 교타자의 진면목을 보인 제일동포 홍문종(롯데) 등이 기억에 남아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 여수시 2연패

전남체전 폐막 ... 나주시 2위

‘목사골’ 나주에서 열린 제 50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희망나주 녹색전남, 하나되는 전남체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주에서 펼쳐진 전남체전이 25일 나주 종합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에서 폐막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 했다.

22개 시군에서 6200여명의 선수들과 임원이 찾아 선의의 경쟁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의 강호’ 여수가 종합득점 3만 342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개최도시 나주는 사이클 강세 속에 3만425점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인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광양이 차지했고 목포, 보성, 순천, 영암이 그 뒤를 이었다.

목포 선수단이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했고,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배구협회에 돌아갔다.

육상 5000m와 단축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광양의 ‘주부 선수’ 서옥연은 대회 MVP의 영예를 안았다.

수영에서는 두 명의 3관왕이 탄생했다. 김민웅(목포)은 접영 50·100m와 혼계영 200m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했고, 여수대표 서승훈은 개인혼영 200m·평영 100m·계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곡성을 대표한 볼링의 유화정·차인화·김문정은 나란히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담양 사격팀은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전남체전 30연패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나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스포츠 브리핑

### 추신수 1안타·레이저 송구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공격에서는 여전히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철벽 수비’로 팀에 기여했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이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와 방문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에 4타수 1안타를 치고 시즌 타율을 0.207로 조금 높였다.

추신수는 1회 초 미네소타 선발투수 칼 파바노의 143km짜리 싱커를 공략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를 쳐냈다.

추신수는 3회말 수비에서 ‘레이저 송구’를 뽐내며 홀로로 쇄도하던 주자를 두 차례나 잡아냈다. 클리블랜드는 미네소타에 3-4로 졌다.

### 박주영 플타임 팀 승리 일조

4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 박주영(26·AS모나코)이 득점포는 가동하지 못했지만 플타임으로 활약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박주영은 25일 오전 모나코의 루이2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시즌 프랑스 정구리그(리그 1) 32라운드 스타드 렌과의 홈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출전해 플타임을 소화했다.

앞서 출전한 3경기에서 연속 골망을 가르며 절정에 오른 골 감각을 과시했던 박주영은 이날 상대 수비수의 집중 견제로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연속 득점 행진을 마감했다.

하지만 전반 38분 페널티 지역 왼쪽 코너에서 받아 수비수를 제치며 날카로운 오른발 슛을 날려 렌 문전을 위협했고 영리하게 상대 파울을 유도하는 등 90분 내내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다. 모나코가 1-0으로 승리했다.

### 나달 바르셀로나 오픈 우승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199만5000유로)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다비드 페레르(6위·스페인)를 2-0으로 제압했다.

2주 연속 클레이코트 대회 결승에서 페레르를 꺾은 나달은 우승 상금 29만 유로와 함께 랭킹 포인트 500점을 획득했다.

2009년까지 이 대회 단식을 5년 연속 제패하다 지난해 불참했던 나달은 “이 대회에서 6번 우승하는 것은 나의 꿈이었다. 테니스 선수의 수명에 비해 6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루기 어려운 기록”이라며 기뻐했다.

## “우승 걱정마”



### 김연아 '지젤' 첫 공개훈련 완벽 소화 모스크바 피겨세계선수권 '금빛 희망'

모스크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13개월 만의 복귀전을 치르는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현지 적응 훈련을 통해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면서 ‘금빛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이 대회에 나서기 위해 22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연아는 이를 연속 빙상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가 전했다.

경기장이 문을 열지 않은 23일에는 한 빙상장을 빌려 경기감각을 다듬었고, 24일에는 경기장인 메가스포르츠 아레나에서 쇼트프로그램을 위주로 빙질 적응에 나섰다.

현지에서 김연아의 훈련을 지켜본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최고의 컨디션’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비롯한 고난도 점프를 완벽하게 소화했고, 표정과 손짓에서 드러나는 풍부한 표현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김연아도 24일 훈련을 마치고 “그동안 닦던 아이스링크와 빙질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계속 연습하면서 점프와 스핀, 스텝 등이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했다.

김연아는 이날 점검한 쇼트프로그램에 대해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 코치가 지젤 DVD를 줘서 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다”면서 “다른 선수들의 지젤도 봤는데, 나는 차별화된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기쁘면서도 슬픈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했다”면서 “프로그램 막바지에 강한 음악과 함께 나오는 강한 스텝 연기가 포인트”라고 전했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은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다 마음에 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여왕의 '지젤'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김연아가 25일 새벽(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메가스포르츠 아레나에서 쇼트 프로그램 '지젤'을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